

# 기술력으로 쌓은 60년 공작기계 외길

화천기공 창립 60주년

국내시장 20% 점유·30개국 수출  
작년 매출 2500억 중견그룹 성장



24일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화천기공 본사에서 직원들이 창업주인 고 권승관 명예회장 동상 앞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하는 중견그룹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기대 이상의 실적으로 어닝서프라이즈를 이어갔던 화천기공은 매출액 2500억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올렸다.

화천기공의 승승장구 비결은 고 권승관 명예회장의 경영철학인 '적인(德人)' 정신에 있다. 끈기와 성실, 정직 즉, 기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화천기공의 기업문화로 자리잡으면서 성장동력을 냈다.

이성호 화천기공 지원본부장은 "화천의 기업문화가 모든 임직원들 사고에 배어 있어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다"며 "직원들의 열정 덕분에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장인정신이 담긴 제품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지금의 화천이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1977년에 화천노조가 설립됐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파업이나 조업중단이 없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한 가족같은 회사 분위기는 오일쇼크로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졌던 1980년, 회사가 경영난

을 겪자 직원들이 상여금을 반납하는 등 함께 고통분담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기도 했다.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화천기공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화천기공은 고 권승관 명예회장에 이어 1997년부터 아들인 권영두 사장이 이끌고 있다.

권 사장은 100년 기업을 향해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을 확대하고 수출 비중을 더욱 늘리는 등 글로벌 무대에서 존재감을 키워 나고 있다.

화천기공은 창립 6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

오는 10월에는 화천그룹 제품 전시회 및 고객 초청행사인 'H-ROAD'전을 개최한다. 또 고객전용공간인 '페크션'도 오는 9월 준공식을 갖는다.

이밖에 '화천가족 음악회'·'화천 한마음 행사' 등 화천인의 날을 위한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세계적 공작기계 전문 제조업체인 화천기공이 오는 26일 창립 60주년을 맞는다.

공작기계는 모든 산업에 없어서 안 될 중요한 설비로 화천기공은 이 분야에 있어 국내에서는 혼존하는 레전드(전설)로 통한다.

1952년 설립된 화천기공은 1977년 세계 4번째이자 국내 최초로 NC(공작기계)선반을 개발하는 등 금형 공작기계 부문 국내 최고 기술력을 자랑한다.

뒤늦게 공작기계 분야에 뛰어든 현대위아, 두산인프라코어 등 대기업들의 자본 공세에도 밀리지 않고 국내 공작기계 분야에서 2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세계 30여개국에 수출, 매출의 26%를 해외시장에서 벌어들이고 있다.

대기업과 경쟁 속에서도 핵심계열사인 화천기계(1975년), 공작기계 부품 제조업체인 서암기계(1978년), 각종 정밀기계를 만드는 TPS코리아(1995년) 등 계열사를 늘려 갔고 2012년 현재 직원수만 1000명에 달

하는 중증그룹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기대 이상의 실적으로 어닝서프라이즈를 이어갔던 화천기공은 매출액 2500억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올렸다.

화천기공의 승승장구 비결은 고 권승관 명예회장의 경영철학인 '적인(德人)' 정신에 있다. 끈기와 성실, 정직 즉, 기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화천기공의 기업문화로 자리잡으면서 성장동력을 냈다.

이성호 화천기공 지원본부장은 "화천의 기업문화가 모든 임직원들 사고에 배어 있어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다"며 "직원들의 열정 덕분에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장인정신이 담긴 제품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지금의 화천이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1977년에 화천노조가 설립됐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파업이나 조업중단이 없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한 가족같은 회사 분위기는 오일쇼크로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졌던 1980년, 회사가 경영난

을 겪자 직원들이 상여금을 반납하는 등 함께 고통분담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기도 했다.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화천기공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화천기공은 고 권승관 명예회장에 이어 1997년부터 아들인 권영두 사장이 이끌고 있다.

오는 10월에는 화천그룹 제품 전시회 및 고객 초청행사인 'H-ROAD'전을 개최한다. 또 고객전용공간인 '페크션'도 오는 9월 준공식을 갖는다.

이밖에 '화천가족 음악회'·'화천 한마음 행사' 등 화천인의 날을 위한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하는 중증그룹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기대 이상의 실적으로 어닝서프라이즈를 이어갔던 화천기공은 매출액 2500억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올렸다.

화천기공의 승승장구 비결은 고 권승관 명예회장의 경영철학인 '적인(德人)' 정신에 있다. 끈기와 성실, 정직 즉, 기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화천기공의 기업문화로 자리잡으면서 성장동력을 냈다.

이성호 화천기공 지원본부장은 "화천의 기업문화가 모든 임직원들 사고에 배어 있어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다"며 "직원들의 열정 덕분에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장인정신이 담긴 제품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지금의 화천이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1977년에 화천노조가 설립됐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파업이나 조업중단이 없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한 가족같은 회사 분위기는 오일쇼크로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졌던 1980년, 회사가 경영난

을 겪자 직원들이 상여금을 반납하는 등 함께 고통분담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기도 했다.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화천기공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화천기공은 고 권승관 명예회장에 이어 1997년부터 아들인 권영두 사장이 이끌고 있다.

오는 10월에는 화천그룹 제품 전시회 및 고객 초청행사인 'H-ROAD'전을 개최한다. 또 고객전용공간인 '페크션'도 오는 9월 준공식을 갖는다.

이밖에 '화천가족 음악회'·'화천 한마음 행사' 등 화천인의 날을 위한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하는 중증그룹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기대 이상의 실적으로 어닝서프라이즈를 이어갔던 화천기공은 매출액 2500억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올렸다.

화천기공의 승승장구 비결은 고 권승관 명예회장의 경영철학인 '적인(德人)' 정신에 있다. 끈기와 성실, 정직 즉, 기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화천기공의 기업문화로 자리잡으면서 성장동력을 냈다.

이성호 화천기공 지원본부장은 "화천의 기업문화가 모든 임직원들 사고에 배어 있어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다"며 "직원들의 열정 덕분에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장인정신이 담긴 제품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지금의 화천이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1977년에 화천노조가 설립됐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파업이나 조업중단이 없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한 가족같은 회사 분위기는 오일쇼크로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졌던 1980년, 회사가 경영난

을 겪자 직원들이 상여금을 반납하는 등 함께 고통분담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기도 했다.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화천기공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화천기공은 고 권승관 명예회장에 이어 1997년부터 아들인 권영두 사장이 이끌고 있다.

오는 10월에는 화천그룹 제품 전시회 및 고객 초청행사인 'H-ROAD'전을 개최한다. 또 고객전용공간인 '페크션'도 오는 9월 준공식을 갖는다.

이밖에 '화천가족 음악회'·'화천 한마음 행사' 등 화천인의 날을 위한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하는 중증그룹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기대 이상의 실적으로 어닝서프라이즈를 이어갔던 화천기공은 매출액 2500억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올렸다.

화천기공의 승승장구 비결은 고 권승관 명예회장의 경영철학인 '적인(德人)' 정신에 있다. 끈기와 성실, 정직 즉, 기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화천기공의 기업문화로 자리잡으면서 성장동력을 냈다.

이성호 화천기공 지원본부장은 "화천의 기업문화가 모든 임직원들 사고에 배어 있어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다"며 "직원들의 열정 덕분에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장인정신이 담긴 제품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지금의 화천이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1977년에 화천노조가 설립됐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파업이나 조업중단이 없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한 가족같은 회사 분위기는 오일쇼크로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졌던 1980년, 회사가 경영난

을 겪자 직원들이 상여금을 반납하는 등 함께 고통분담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기도 했다.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화천기공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화천기공은 고 권승관 명예회장에 이어 1997년부터 아들인 권영두 사장이 이끌고 있다.

오는 10월에는 화천그룹 제품 전시회 및 고객 초청행사인 'H-ROAD'전을 개최한다. 또 고객전용공간인 '페크션'도 오는 9월 준공식을 갖는다.

이밖에 '화천가족 음악회'·'화천 한마음 행사' 등 화천인의 날을 위한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하는 중증그룹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기대 이상의 실적으로 어닝서프라이즈를 이어갔던 화천기공은 매출액 2500억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올렸다.

화천기공의 승승장구 비결은 고 권승관 명예회장의 경영철학인 '적인(德人)' 정신에 있다. 끈기와 성실, 정직 즉, 기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화천기공의 기업문화로 자리잡으면서 성장동력을 냈다.

이성호 화천기공 지원본부장은 "화천의 기업문화가 모든 임직원들 사고에 배어 있어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다"며 "직원들의 열정 덕분에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장인정신이 담긴 제품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지금의 화천이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1977년에 화천노조가 설립됐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파업이나 조업중단이 없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한 가족같은 회사 분위기는 오일쇼크로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졌던 1980년, 회사가 경영난

을 겪자 직원들이 상여금을 반납하는 등 함께 고통분담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기도 했다.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화천기공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화천기공은 고 권승관 명예회장에 이어 1997년부터 아들인 권영두 사장이 이끌고 있다.

오는 10월에는 화천그룹 제품 전시회 및 고객 초청행사인 'H-ROAD'전을 개최한다. 또 고객전용공간인 '페크션'도 오는 9월 준공식을 갖는다.

이밖에 '화천가족 음악회'·'화천 한마음 행사' 등 화천인의 날을 위한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하는 중증그룹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기대 이상의 실적으로 어닝서프라이즈를 이어갔던 화천기공은 매출액 2500억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올렸다.

화천기공의 승승장구 비결은 고 권승관 명예회장의 경영철학인 '적인(德人)' 정신에 있다. 끈기와 성실, 정직 즉, 기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화천기공의 기업문화로 자리잡으면서 성장동력을 냈다.

이성호 화천기공 지원본부장은 "화천의 기업문화가 모든 임직원들 사고에 배어 있어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다"며 "직원들의 열정 덕분에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장인정신이 담긴 제품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지금의 화천이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1977년에 화천노조가 설립됐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파업이나 조업중단이 없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한 가족같은 회사 분위기는 오일쇼크로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졌던 1980년, 회사가 경영난

을 겪자 직원들이 상여금을 반납하는 등 함께 고통분담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기도 했다.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화천기공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화천기공은 고 권승관 명예회장에 이어 1997년부터 아들인 권영두 사장이 이끌고 있다.

오는 10월에는 화천그룹 제품 전시회 및 고객 초청행사인 'H-ROAD'전을 개최한다. 또 고객전용공간인 '페크션'도 오는 9월 준공식을 갖는다.

이밖에 '화천가족 음악회'·'화천 한마음 행사' 등 화천인의 날을 위한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하는 중증그룹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기대 이상의 실적으로 어닝서프라이즈를 이어갔던 화천기공은 매출액 2500억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매출